

제외하고 이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 grammar ’ 가 의미하는 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母語의 일반적인 기능 구조에 관한 記述
2. 個別 言語의 형태론적 통사론적 記述
3. 個別 言語의 기능 구조를 지배하는 규칙이나 각 個別 言語의 史的 변화를 다루는 學問의 한 분야
4. 言語 사용시 지켜야 할 言語 규범의 집합
5. 특정 個別 言語를 이용한 표현과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청자와 화자에게 內在되어 있는 체계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은 ‘ 文法 ’ 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文法上的 能力(grammatical competence)를 논하기 위한 ‘ 文法 ’ 의 의미는 4와 5, 특히 5의 의미라 할 수 있는데, 4를 전통적인 文法觀이라고 한다면 5는 현대적인 文法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 文法上的 能力 ’ 이란 ‘ 한 言語로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言語內的 약속을 구사하는 能力 ’ 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能力의 계발 혹은 신장을 위하여 특정 個別 言語의 言語內的 약속, 즉 文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Ⅲ. 文法教育和 學校文法

1990년부터 신입생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 5 차 教育課程은 “文法”을 文學, 作文과 더불어 高等學校 國語科의 독립된 科目으로 지정하고 있다. 새 教育課程이 설정한 바 文法科目의 目標은 다음과 같다.⁵⁾

가. 目 標

국어 과목(특히 ‘언어’ 영역)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한다.

- 1) 현대 국어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 2) 국어와 국자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 3) 국어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한다.

文法科目에 관한 教育과 定義 記述은 그 어느 부분에도 ‘學校文法’이란 用語를 담고 있지 않으며, 좁은 의미의 ‘文法’ 講座라기

5) 教育課程이 제시한 바 文法教育의 目標 및 내용의 타당성, 教育課程—現行 學校文法—現行 文法 教科書—教育現場 간의 연계성 등의 문제는 반드시 토론되어야 할 과제이나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음.

보다는 넓은 의미의 ‘國語學’ 講座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國語 國字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文法の 이해’를 전제로 하며, 중고생들에게 이른바 學問文法の 다양성을 수용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보면, 國語를 說明 記述하는 통일된 체계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 기대에 부응하는 學校文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國語科教育에서 마저 기계적인 정답 - 오답 처리를 하고자 하는 現行 評價 制度 內에서 다인수 학급을 운영하려면 무언가 정답에 가까운 기준으로서의 文法도 필요한 것이다.

전통적 의미의 學校文法이란 言語使用者가 바르게 말하고 쓰기 위하여 지켜야 할 규칙들을 담고 있는 規範文法인 반면, 현대적 의미의 學校文法이란 言語使用者가 바르게 말하기 쓰기의 기준으로 삼을, 國語科教育의 目標語를 記述한 文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目標語에 접근하기 위해 알고 따라야 할 규칙들도 포함되나 전통적 의미의 規範文法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부연하면, 전통적 의미의 學校文法에서 말하는 규칙은 판단을 수반하는 결과적 規範인데 반해, 현대적 의미의 學校文法에서 다루는 규칙들은 言語遂行의 過程에 적용시킨다는 점에서 生成的 規範이어야 하는 것이다.

바르게 말하기 쓰기란 올바른 발음이나 철자법 혹은 그 言語의 記述 分析 결과인 수많은 규칙의 암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어휘력을 바탕으로 目標語의 규칙들을 거의 무의식적인 상태에

서 구사하여 음성이나 문자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能力을 갖추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學校에서의 文法教育에 있어도 規範이나 국어 분석 결과로서의 규칙을 가르치기 보다는 국어 분석의 課程과 분석 결과로 나온 규칙의 구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國語의 분석보다는 國語의 분석적 이해가 중요한 것이다. ‘文法’은, 결과적 規範이건 생성적 規範이건, 國語의 구조를 보여 줌으로써 國語의 言語的 체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語國의 이해를 도와, 보다 효과적인 國語生活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바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文法教育은 言語 자료의 기계적인 분석이나 그 결과의 암기를 통한 소위 논리성 내지 분석적 사고력 신장을 표방하거나, 文法範疇의 표지의 암기, 혹은 이들을 인위적인 言語 자료에 적용시켜 보는 식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文法教育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같은 目標에 부합되는 적절한 學校文法과 이를 가르치는 데에 필요한 교수 기술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學校文法도 다른 여러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인된 標準語를 기본적인 자료로 한다. 오늘날에 있어서 標準語는, 특정 지역·특정 계층의 방언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방언의 우월성에 근거한다기 보다는, 유용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기능을 문제삼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標準語의 경우에도 “현재 서울에 사는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지역 주민 구성의 다양성과 ‘교양있는 사람들’이라는 규정의

모호성은 오히려 標準語에 있어서 허용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標準語 ‘교양있는 서울 사람들만’ 쓰는 言語가 아니라 ‘모두가 두루 쓰는’ 특수 방언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라는 기준 시점의 시대적 모호성은, ‘標準語’로 제정되어 있는 言語 集合이 과연 그 주어진 바 定義에 적합한 言語 資料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標準語가 과연 오류 판정의 표준(standard) 내지는 準據(norm)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⁶⁾

뿐만 아니라, 標準語에도 기타 방언과 같이 다양한 層位(register)와 話階(level), 文體(style)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標準語의 어떤 부분에서 자료를 선정하는가 하는 점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學校文法을 논함에 있어서 標準語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것이며, 學校文法の 教授 學習에 있어서도 標準語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文字言語 중심의 文法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6) " l'ecart entre les performances réelles des sujets parlants et la norme enseignée s'accroît régulièrement ; la raison n'en est pas que les enfants sont culturellement faibles mais que les maîtres corrigent d'après une norme qui est en contradiction avec le nouvel environnement culturel des locuteurs." J. Dubois (1972:9)